

2018 인문계열 모의논술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김조시는 한성부의 다모(茶母)*다. 임진년(1832)에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에 대기근이 들었다. 한성부에서는 민간에서 술 담그는 일을 일절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형이나 벌금형에 처했다. 술 담근 죄를 일부러 숨겨 주어 붙잡지 않은 관리가 있을 경우에도 죄를 물어 결코 용서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자 관리들은 빨리 붙잡지 않고 있다가 자신에게 죄가 돌아올까 염려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을 고발하게 하고, 고발한 사람에게는 벌금에서 2할을 떼어 포상금으로 주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고발하는 자는 날로 늘어났고 관리들은 귀신처럼 죄를 적발해 냈다.

어느 날 한성부의 아전 하나가 남산 아래 어느 거리의 외진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전은 다모를 가까이 부르더니 시내 위로 놓인 다리 끝에서 몇 번째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긴 양반 집이라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 네가 먼저 안채로 들어가 쓰레기를 뒤져 보고 술지게미가 있거든 고함을 치거라. 그러면 내가 당장 들어가마.”

다모는 그 말대로 살금살금 까치걸음으로 들어가 집 안을 수색했다. 과연 석 되들이쯤 되는 항아리에 새로 담근 술이 들어 있었다.

다모가 항아리를 안고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땅에 엎어졌다. 눈이 빛을 잃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사지가 마비되고 얼굴이 파래졌다. 기절한 것이었다. 다모는 항아리를 내려놓고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뜨거운 물을 급히 가져다 입 안으로 흘려 넣었다. 잠시 후에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다모가 질책했다.

“나라에서 내린 명령이 어떠한데 양반 신분인 분이 이처럼 법을 어긴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사죄하며 말했다.

“우리 집 양반이 지병을 앓고 있는데, 술을 못 마시게 된 이후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 병이 더욱 고질이 됐네. 가을부터 겨울까지 며칠씩 밥도 못 먹고 살다가 며칠 전에 마침 쌀 몇 되를 어디서 얻어 왔어. 노인의 병을 구완할 생각으로 감히 법을 어겨 술을 빚고 말았지만, 어찌 잡힐 줄 생각이나 했겠나. 선한 마음을 가진 보살께서 제발 우리 사정을 보아 주시기 바랄 뿐이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꼭 갚겠네.”

다모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항아리를 안고 가서 잣더미에 술을 쏟아 버렸다. 그리고는 사발을 하나 손에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아전은 다모를 보고 물었다.

“어찌 됐느냐?”

다모는 웃으며 말했다.

“술 담근 걸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송장이 나오게 생겼소.”

다모는 곧장 죽 파는 가게로 가서 죽 한 그릇을 산 뒤 다시 양반 댁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죽을 건네주었다.

“할머니가 음식도 못 해 잡수신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 드리는 겁니다.”

다모는 그렇게 말한 뒤 여기서 몰래 술 담근 걸 누가 또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쌀도 내가 찧고 술 담그는 일도 내가 했으니, 늙은 할미 혼자 지키는 집에 알 사람이 또 누가 있겠나?”

“그럼 다른 사람에게 술을 팔진 않으셨나요?”

“나는 늙은 남편 병을 구완할 생각으로 술을 담근 것뿐일세. 향아리도 겨우 몇 사발쯤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남에게 팔고 나면 무슨 남은 게 있어서 우리 집 양반을 드리겠나. 하늘에서 환한 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속이겠나?”

“정말 그러시다면 누군가 술맛을 본 사람이 달리 없을까요?”

“젊은 생원이 있네. 우리 시동생. 어제 아침에 성묘하러 가는데 우리 집 가난한 살림에 아침밥을 해 줄 수가 있나. 밥을 굶고 길 떠나야 될 형편이라 내가 술 한 사발을 떠다 드렸네. 그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

(중략)

다모는 아전을 따라 한성부로 향했다. 젊은 생원 하나가 뒷짐을 지고 십자가를 서성이며 아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다. 젊은 생원의 생김새는 할머니가 가르쳐 준 시동생의 생김새와 똑같았다. 다모는 손을 쳐들어 생원의 따귀를 때리더니 침을 뱉으며 꾸짖었다.

“네가 양반이냐? 양반이란 자가 형수가 몰래 술을 담갔다고 고자질하고는 포상금을 받아먹으려 했던 말이나?”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들 주변을 빙 둘러서서 구경을 했다. 아전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 주인 할멈의 사주를 받아 나를 속이고 술 빛은 걸 숨겨주고는 도리어 고발한 사람을 꾸짖어?”

아전은 다모를 붙잡아 주부(主簿)* 앞에 가서 다모의 죄를 고해바쳤다. 주부가 심문하자 다모는 사실대로 모두 자백했다.

*다모: 관아에서 식모 노릇을 하던 관비. 한성부나 포도청에서는 수사를 보조하기도 함.

*주부: 한성부 등에 두었던 종6품 벼슬.

— 송지양, 「다모전(茶母傳)」

(나)

지금 정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형을 무겁게 하면 백성이 상한다. 형을 가볍게 하더라도 간악을 막을 수 있다. 왜 반드시 무겁게 하는가?’라고 한다. 이것은 정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자의 말이다. 대개 무겁게 해야 그만두는 자는 가볍게 하면 결코 그만두지 않고 가볍게 해도 그치는 자는 무겁게 하면 반드시 그만둔다. 이런 까닭에 위가 무거운 형벌을 마련하면

간악함이 모두 그친다. 간악함이 모두 그친다면 어찌 이것이 백성에게 손상을 입히겠는가. 소위 무거운 형벌이란 것은 간악한 자가 이득을 보는 것은 작으나 위가 가하는 것은 크다. 백성은 작은 이득 때문에 큰 죄를 입으려 하지 않으므로 간악함이 반드시 그친다. 이른바 가벼운 형벌이란 것은 간악한 자가 이득을 보는 것은 크나 위가 형벌을 가하는 것은 작다.

백성은 이득만을 좋아하고 죄를 업신여기므로 간악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옛 성인이 이르는 속담에 말하기를 ‘산에서는 넘어지지 않으나 개미무덤에 넘어진다.’고 한다. 산이란 것은 크므로 사람이 조심하지만 개미무덤은 작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만약 형벌을 가볍게 한다면 백성은 반드시 그것을 알아볼 것이다. 죄를 범하여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온 나라 사람을 내몰아서 버리는 것이 된다.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처벌한다면 이는 백성을 위해서 함정을 파놓는 것이 된다. 이런 까닭으로 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는 것은 백성의 개미무덤이 된다. 그러므로 가볍게 하는 것을 도로 삼는다면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으면 백성의 함정을 파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 백성을 상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한비, 『한비자』

(다)

칸트에 따르면,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동기이며, 그것은 특정한 종류라야 한다.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옳기 때문이라야지, 이면에 숨은 동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선한 의지가 선한 까닭은 그것이 어떤 효과나 결과를 낳아서가 아니다.”라고 칸트는 말한다. 그것은 널리 인정받든 그렇지 않든 그 자체로 선하다. “비록(……) 이 의지가 원래 의도를 널리 퍼뜨릴 힘이 매우 부족하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얻을 수 없다 해도, (……) 그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선하려면, “도덕법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덕법 그 자체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동기는 의무인데, 칸트가 말하는 의무 동기란 올바른 이유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칸트는 단지 의무 동기만이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할 뿐,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의무가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도덕의 최고 원칙이 무엇을 명령하는지도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동기를 따질 뿐,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다. 만약 의무가 아닌 다른 동기로, 이를테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부족한 행동이다. 비단 내 이익만이 아니라 내 바람, 욕구, 기호, 식욕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도 마찬가지다. 칸트는 자신이 ‘끌림 동기’라 부른 것을 의무 동기와 대조해 비교한다. 그러면서 의무 동기에서 나온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의무와 끌림의 차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신중한 가게 주인의 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를 테면 어린 아이가, 가게에 들어와 빵을 사려고 한다. 주인이 원래 빵 값보다 돈을 더 받아 바가지를 씌워도 아이는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주인은 아이를 그렇게 이용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소문이 퍼져 장사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값을 부른

다. 이때 가게 주인은 옳은 일을 했지만, 그 이유는 옳지 않다. 그가 아이와 정직하게 거래한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평판 때문이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정직하게 행동했을 뿐이다. 따라서 가게 주인의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다.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문제1-1] (가)의 아전이 고했을 ‘다모의 죄’의 내용을 제시하고, (나)의 관점에서 이러한 죄가 초래할 부정적 결과를 논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25점)

[문제1-2] (다)에서 소개한 칸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가)에 나타난 다모의 행동을 변호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2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가)**

고정관념은 사람들이 특정 집단의 성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보편적인 신념이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유태인은 빈틈없고 야심적이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운동과 음악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교도들은 종교적 광신자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모든 유태인, 모든 아프리카계 미국인, 모든 이슬람교도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유포된 고정관념은 성별, 연령 및 민족성에 기초하고 있다. 변화 중이기는 하지만 성별 고정관념은 여전히 만연되어 있다. 예컨대, 30개국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은 전형적으로 모험적이고, 강력하고, 독립적인 특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반면 여성은 감성적이고, 복종적이고, 미신적인 특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고정관념은 신체적 외모에도 기초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들은 바람직한 성격 특성들을 소유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어진다. 즉, ‘미인은 착하고 능력 있다.’는 고정관념이다.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은 매력이 적은 사람들보다 대개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고, 자기주장을 잘하며, 적응을 잘하고, 지적으로 유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영역에서 이점을 갖는다. 예컨대, 그들은 사교술이 더 좋으며, 인기가 더 많고, 사회적으로 덜 불안하고(특히 이성과의 상호작용에서), 덜 고독하고, 이성교제 경험이 더 많다. 그러나 매력적인 사람들도 지능, 성격특성, 정신건강 등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력적인 사람들은 실제 이상으로 더 호의적으로 지각된다. 불행히도, 매력적인 사람들을 향한 긍정적 편향은 역으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매력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응을 잘 못하고, 지적으로 덜 유능하다고 여겨진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좋은 외모가 일상생활에 유리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

때로 지각하는 사람의 기대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어떤 사람에 관한 기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할 때 일어난다. 이 용어는 원래 경기 침체 시기에 은행에 예금을 찾으려고 예금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학자 머튼(Merton)이 만든 것이다. 즉, 은행이 고객들의 예탁금을 돌려줄 수 없을 거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은행에 몰려와 예탁금을 회수하고, 따라서 은행의 예금이 빠져나가게 되어 처음에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 실제 현실이 된다. 어떤 사람에 대한 당신의 기대는 3단계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기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첫째, 당신은 누군가에 관한 인상을 형성한다. 둘째,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의 인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셋째, 그 사람은 당신의 행동으로부터 유발된 행동을 보이고, 따라서 당신의 시초의 인상을 입증시키게 된다. 자기 충족적 예언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실험이 교실 상황에서 실시되었는데, 이 실험에서는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교사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 학급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급보다 실제로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보였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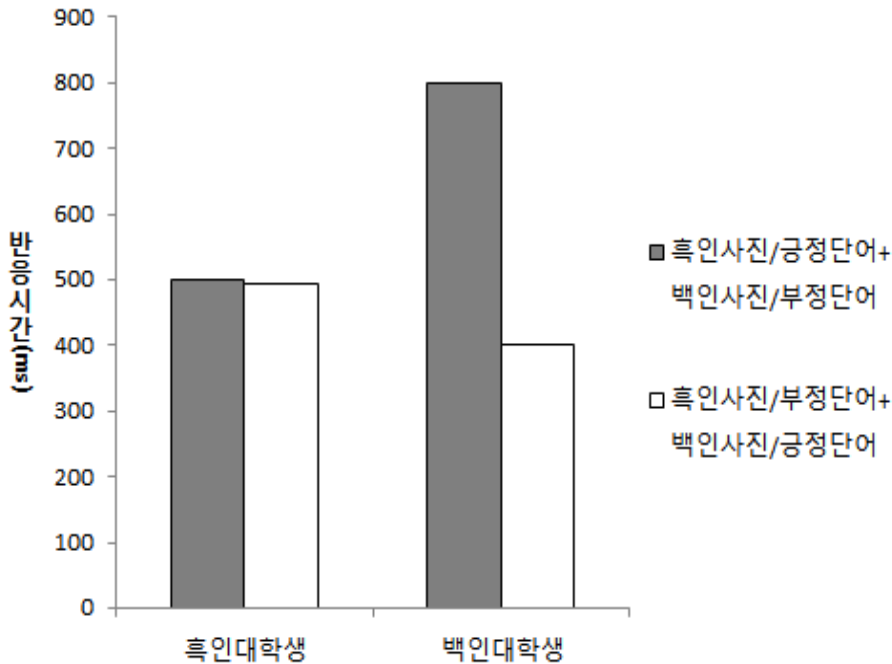
고정관념으로 인한 편향은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어떤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과 같은 사람들(원손잡이거나 남성 혹은 여성이거나 특정 지역출신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시험을 잘 못 봐요.”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도 의욕을 잃을 것이다. 비록 이 말을 믿지 않았어도 이 말은 당신의 주의를 흐뜨릴 것이다. 혹시라도 시험을 잘 못 보면 그 기분 나쁜 예측이 사실임이 확인될 거라고 걱정과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고정관념 위협’이라고 한다. 이는 자신이 수행을 잘하지 못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는 지각된 위협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여자가 수학을 더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강조할 때 여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평균적으로 더 떨어진다. 왜냐하면 여학생들의 불안은 증가되고 집중도는 하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믿지 않거나 그것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여학생들은 수학을 더 잘한다. 또 다른 고정관념 중 하나는 흑인이 백인보다 더 높은 운동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 백인과 흑인 대학생에게 미니 골프와 비슷한 게임을 하도록 지시했다. 연구자가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 게임을 실시한다고 하자 흑인 학생은 백인 학생보다 더 잘했으며 백인 학생들이 불안은 더 많이 느꼈다고 보고했다. 반면 이 게임이 운동에서의 전략적 사고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할 때, 백인이 흑인보다 더 잘했으며 흑인 학생들이 더 큰 불안을 보고했다. 이와 유사하게 아시아 여성에게 수학문제를 풀도록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한 집단의 아시아 여성에게 먼저 여성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하면서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유도한 후 수학문제를 풀게 했다. 이 여성들의 수학점수는 평소보다 낮았다. 다른 여성들에게는 자신이 ‘아시아인’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통념상 아시아인들이 수학을 더 잘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 결과 자신이 아시아인이라는 생각에 집중하는 것은 아시아 여성들의 수학점수를 향상시켰다.

(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흑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들에게는 정말 편견이 없는 것일까?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도 인정하길 원하지 않는 미묘한 편견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왔다. 한 가지 방법이 ‘암묵적 연합검사’이다. 자극을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다음의 예를 상상해 보라. 당신의 검지를 컴퓨터 키보드에 올려놓는다. 단어를 들려줄 때, 만약 ‘죽음’같은 부정단어를 듣게 되면 왼쪽 손가락으로 눌러야 하고, ‘기쁨’과 같은 긍정단어이면 오른쪽 손가락으로 눌러야 한다. 잠시 후, 지시가 변경된다. 이제 벌레 이름을 듣게 되면 왼쪽 손가락으로, 꽃 이름을 듣게 되면 오른쪽 손가락으로 눌러야 한다. 그런 후에 두 개의 범주를 결합시킨다. 즉 부정단어이거나 벌레는 왼쪽 키이고, 긍정단어이거나 꽃은 오른쪽을 누른다. 그런 다음 쌍을 변경한다. 즉 부정단어나 꽃은 왼쪽 키를 누르고, 긍정단어이거나 벌레는 오른쪽 키를 눌러야 한다. 두 지시를 번갈아 가며 그 절차를 반복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단어와 꽃’ 조합을 ‘긍정단어와 벌레’ 조합보다 더 빠르게 반응한다. 결론은 사람들이 벌레보다는 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마)

암묵적 연합검사는 사진과 단어를 시각적으로 제시해도 가능하다. 컴퓨터 화면에서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을, 때로는 한 단어를 보게 된다. 만약 흑인의 사진이거나 부정단어이면 왼쪽 키를 누르게 하고 만약 백인의 사진이거나 긍정단어이면 오른쪽 키를 누르게 한다. 한동안 그 방식으로 하다가 반대 쌍으로 규칙이 변경된다. 다음은 암묵적 연합검사에 참여한 흑인 대학생 집단과 백인 대학생 집단의 검사 결과이다.



〈그림〉 백인 대학생의 암묵적 연합검사 결과

[문제2-1] 제시문 (가)에서 예를 든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를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200)자로 할 것(25점).

[문제2-2]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제시문 (마)의 암묵적 연합검사의 결과와 의미를 해석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200)자로 할 것(25점).